

전남방직·일신방직 사라진 흔적, 가상공간서 만난다

프로젝트 '도시직조' 전

김현돈·박화연·정소영 등 참여

87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은 광주의 대표적인 근대산업유산이다. 이 곳은 일제 수탈의 아픔의 현장이자, 해방 이후 지역 산업화 시대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광주에 마지막으로 남은 근대산업 시설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흔적이 남겨진 곳이기도 하다.

최근 이 공간의 활용방안을 놓고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적 기록'으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장소의 역사성을 돌아보고 사라질지도 모를 공간과 삶에 대한 기억, 새로운 미래의 동력을 모색하는 가능성을 예술적 기록과 상상력으로 표현해본 프로젝트다.

다양한 기획을 진행해온 'OverLab.'은 프로젝트 '도시직조 WeavingLab.'을 웹사이트(weavinglab.creatorlink.net, overlab.creatorlink.net)에서 영구전시 중이다. 당초 '장소성'을 살려 공간에서 전시회를 진행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다른 공간을 찾는 대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가상공간에 전시를 구현했다.

웹 전시공간에는 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장소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공간 활영자료, 리서치 과정을 담은 이미지 등이 모두 실려 있어 '충실한 아카이브' 역할을 한다.

김재민이, 김현돈, 박화연, 정소영 등 4명의 참여 작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 결과 작업 주제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을 넘어 '공장'으로 확장됐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현돈 작가의 영상 작품 '0 그리고 1'을 클릭하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지역의 대표적 공간에 어린 집단적 기억을 탐구하는 작업을 해온 그는 유년시절의 흐릿한 기억 속에서 기계와 사람들 불비고 소음이 가득했던 방직공장을 소환해 작업했다. 작품은 VR 방식으로 구현돼 방직공장 내부의 분위기를 360도로 관찰할 수 있다. 작가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을 촬영, 가상 공간에 구현한 후 방직 공장의 중요 요소인 '생사(生絲)'를 거대한 조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박화연 작가의 작품 '고무적인 기억' 시리즈는 '공장'과 관련한 서사를 담아낸 작품이다. 작가는 '고무적인 기억-꽃부리 영 아름다움 미'에서는 부산 신발공장에서 일했던 어머니의 서사를 빌려와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고무적인 기억-밤을 명망을 속'에는 실제로 일신방직에서 일했던 여성의

목소리를 담았다. 또 다른 영상 작품 '몸의 기억'은 전남방직 여공들의 기숙사 공간을 직접 촬영한 작품으로 공간 속을 배회하고 굴러다니는 실타래를 통해 노동의 형태가 여성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바뀌는 등 끝없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김재민이 작가의 영상 작품 '안 보이는 부동산'은 작가의 무덤덤한 나레이션을 통해 마치 '부동산 TV'처럼 전남 지역의 공장지대를 소개한다. 지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전남방직을 찾았던 그는 이곳의 미래를 생각하며 전남의 폐공장을 찾았고, 그 곳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사람들, 기업의 야망 등을 떠올리기도 했다.

정소영 작가는 '숨'을 소재로 작업했다. 공장을 방문했을 때 작가는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락

되어 날아가려다 탈출하지 못한 숨'을 보았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위해 생산되었던 하얀 숨은 더러운 때처럼 공장 벽에 붙어있었다. 작가는 색과 형태를 바꾸어 공장 안과 밖을 누비는 작은 숨이 '공장이 사라져도 틈새를 찾아 끝없이 날아다닐 거'라 생각했고 숨의 이미지를 촬영해 5종의 엽서로 제작했다.

작가에게 이메일(cottonpostcard@gmail.com)을 보내면, 숨이라는 존재가 세상 어디로든 날아가듯, 어디서든 엽서를 받을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김선영 큐레이터는 "'도시직조'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지역성, 장소성에 주목하며 예술적 시각으로 도시의 시간과 삶을 짜고 관계를 엮은 기획"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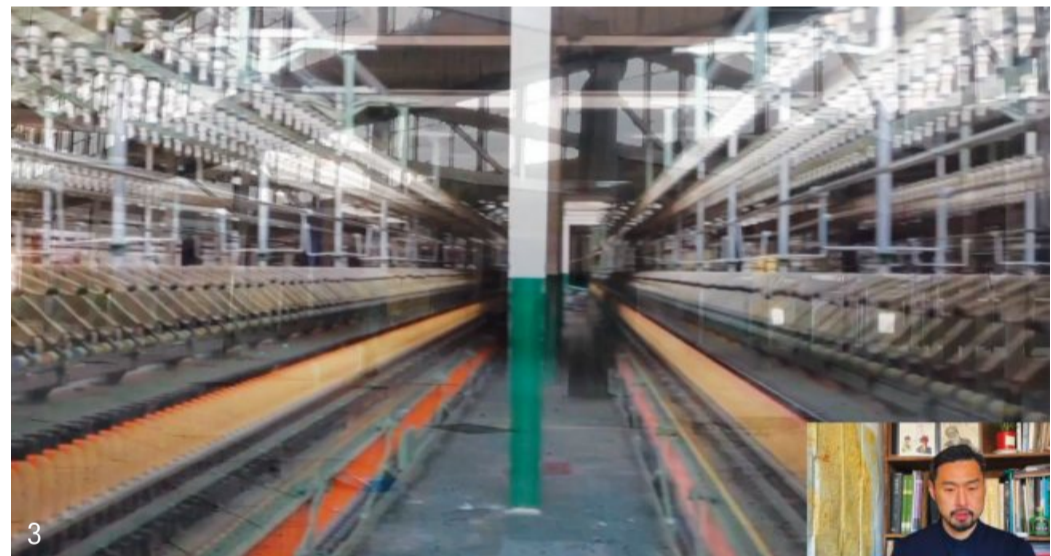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정소영 작 '숨'



- 1 박화연 작 '고무적인 기억-꽃부리 영 아름다움 미'
- 2 김현돈 작 '0 그리고 1'
- 3 김재민이 작 '안 보이는 부동산'



“살아온 이야기... 옛 추억을 떠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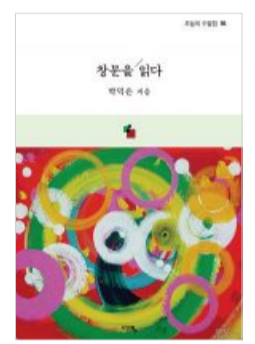
화순 출신 박덕은 시인, 수필집 '창문을 읽다' 펴내

“어리석고, 무디고, 연약하고, 후회스러운 추억들도 많지만 나름대로 보람있게 살아온 과거가 곁에 와서 위로해 주는 지금, 이 수필집이 주는 행복감이 생각보다는 크게 여겨진다.”

화순 출신 박덕은 시인이 수필집 '창문을 읽다' (서영)를 펴냈다.

모두 30여 편의 글들은 창작 생활을 하며 일상에서 느낀 단상들을 정감한 문체로 감무리한 것들이다. '나무도마', '쌍골죽과 대금 소리', '남도의 아버지', '나무의 시간처럼', '나의 어머니', '고무신', '부지쟁이' 등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들이 대부분이다.

그 가운데 다수 작품들은 '샘터 수필 문학상' 수상작 등 문학상 공모전 수상작들로, 그동안 저자의 문학적 성과를 보여준다. 사소한 것들을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들은 잔잔한 여운을 준다.



저자는 “시를 쓰게 된 것, 수필과 친하게 된 것, 문학 강의를 하여 문학 제자들이 성장하도록 도와 준 것 등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다.

한편 저자는 전북대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실문예창작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여수해양문학상, 사하모래톱 문학상, 계몽사 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바람은 시간을 털어낸다', '무지개학교' 등 시집과 문학이론서 '현대시창작법', '시의 이론과 창작'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올재 클래식스 '나의 투쟁' 등 출간

사단법인 올재는 '올재 클래식스' (사진) 41번째 시리즈로 '제감도설', '나의 투쟁', '독일 국민에게 고함'을 최근 펴냈다.

'제감도설' (帝鑑圖說)은 명나라 정치가 장거정(張居正)이 어린 황제를 위해 쓴 교재다. 황제가 거울로 삼아 알아둬야 할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정리했다.

'나의 투쟁'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남긴 자서전으로, 2권으로 출간됐다.

'독일 국민에게 고함'은 독일 철학자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가 나폴레옹 전쟁에서 패한 자국민에게 민족의식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했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펴낸 책이다.

'제감도설' 역자는 임동석 건국대 명예교수다.



'나의 투쟁'과 '독일 국민에게 고함'은 작고한 학자들이 황성모 전 서울대 교수, 광복록 전 서강대 교수가 번역했다.

가격은 권당 2900원이다.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